

만니톨 수요 부쩍 “증가”

94년 내수 425톤 … 수입가격 Kg당 3.6달러로 상승

국내 만니톨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로 약품감미제로 사용되고 있는 만니톨이 깊은 불황의 수렁을 탈출해 호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제약경기에 힘입어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니톨 수입현황		(단위: M/T,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프 랑 스	197	210	6.6
브 라 질	120	132	10.0
중 국	35	68	94.3
기 타	15	15	-
합 계	367	425	15.8

또 이런 가운데 만니톨 대메이커인 ICI가 그동안 동남아 시장을 관장해왔던 오스트레일리아 현지공장을 완전 폐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국내 수입 가격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94년 만니톨 국내수요는 425톤, 160만달러로 93년 367톤, 125만달러에 비해 수량기준 16.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93년 수요증가율 1%에 비해 무려 15.3% 급증한 것으로서 국내 제약경기의 호조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가격은 94년 12월 현재 프랑스 Roquette와 브라질 Getec 모두 CIF기준 Kg당 3.6달러로 94년초 3.2달러에 비해 4센트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 그레이드인 주사용은 Kg당 4달러에 수입돼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저가품인 중국산은 Kg당 3달러에 수입되고 있어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니톨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94년 기준 Roquette가 210톤으로 48%, Getec이 132톤으로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4년 수입량이 68톤 정도인 중국산은 가격적인 우위 때문에 비메이커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품질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만니톨이 95%이상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타블렛·산제·현탁액 등에 쓰이며, 특히 보령제약이 겔포스 첨가물로 연간 90톤, 중외제약이 주사제로 연간 8톤 정도씩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일양약품·한국 바이엘약품·고려제약 등이 직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기업들은 원풍약품·화덕약품 등 수입도매상을 통해 연 1톤 미만씩 소량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만니톨은 의약품 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Sliding부품의 가공, 실험용 시약으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의 경우 만니톨은 무설탕껌이나 무설탕캔디 등 식품용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허가조차 나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용도개발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수요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동남아지역 공급을 포기한 ICI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남미에 중점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남미의 만니톨가격은 4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1/23>

